

이재명, 원팀 넘어 중도확장 나선다

이낙연 손잡고 광주 방문
민주진영 총 결집 호소
윤석열 선대위 해체와 대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이낙연 공동위원장이 5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광주비전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5일 이낙연 전 대표와 '원팀 행보'에 속도를 내면서 중도 세력 확장 등 외연 확대에 나섰다. 새해에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따돌리고 지을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향후 대선일(3월9일)까지 민주진영 결집과 중도층 확장을 통해 승기를 이어 가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특히 이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 해산을 발표하는 등 야권의 결집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향후 대비 효과를 키우겠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관련기사 3면>

이 후보는 이날 이 전 대표의 지지기반이자 당의 텃밭인 광주에서 손을 맞잡고 협력을 다짐하며 남은 대선일까지 민주 진영의 총결집을 호소했다. 이 후보는 이 전 대표와 함께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비전위) 광주비전회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준경하는 이낙연 비전위 위원장님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과 국민 통합을 이야기하는 자리에 함께 하게 돼 반갑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과 개혁·민주진영의 통합과 연대의 정신을 믿는다"며 "단결된 힘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면서 새로운 나라를 함께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전남 신년 기자회견에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IMF 극복 리더십을 강조하며 민주당 후보로서의 적통성을 강조한 데 이어, 이날 다시 한번 '통합된 민주당'을 강조하며 당의 텃밭인 호남의 지지를 호소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비전위 공동대표로 참석한 이 전 대표도 "양극화 해소와 복지 확충 등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심화 등 새로운 과제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면서 "그 일을 이재명 동지와 민주당이 해내겠다"고 화답했다. 그

리면서 "국가비전과 국가통합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책임"이라면서 "그 길을 광주·전남도 함께 가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 사회를 맡은 이병훈 의원은 "물리적 결합을 뛰어넘어 화학적 결합이 되는 자리"라면서 다시 한번 이 후보와 이 전 대표의 '원팀 행보'를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행사 이외에도 경선 경쟁자이던 이 전 대표와의 접촉 빈도를 늘리고 강도를 키우고 있다. 선대위 출범 51일 만이던 지난해 12월 23일 이 전 대표와 오찬 회동을 통해 선대위 합류를 끌어낸 이후 같은 달 27일 비전위 출범식, 29일 신복지공약 발표 행사에 이어 네 번째 만남이다. 앞선 행사에서 이 전 대표의 브랜드인 '신복지'를 고리로 정책적 결합을 이뤄낸 데 이어, 이번에는 이 전 대표의 지역적 기반인 호남 일정에 동행하며 원팀 결속을 강화했다는 평가다.

이 후보는 또 이날 중순에 이 전 대표와 함께 참여하는 행사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민의힘의 내용이 절정에 이른 상황에서, 이와 대비되는 진영 결집의 효과를 극대화해 지지율 역전과 그 상승세 흐름을 굳히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윤 후보가 김중민 위원장과 결별한 것과 달리 경선 경쟁자이던 이 전 대표와 맞잡고 원팀 행보를 가속하면서 통합과 포용을 끌어낼 수 있는 지도자란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후보와 이 전 대표의 이 같은 원팀 행보와 결속은 진영 결집과 함께 그동안 이 후보에게 등을 돌렸던 중도층에 대한 확장으로도 연결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광주비전회의가 끝난 뒤 담양 예코센터와 곡성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한 귀 상경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북 미사일 발사했지만 대화의 끈 놓지 말아야"

문 대통령, 동해선 철도 착공식 참석

문재인 대통령은 5일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열린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건설 착공식에 참석, "오늘 아침 북한이 단거리미사체를 시험발사했다"며 "이런 상황을 근원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반도 평화는 저절로 오지 않으며 한반도에 때때로 긴장이 조성된다"면서 "남북이 함께 노력하고, 남북 간에 신뢰가 쌓일 때 어느 날 문득

평화가 우리 곁에 다가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을 향해서도 "북한도 대화를 위해 더욱 진지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이 새해 첫 도발이 감행했지만 이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안되며, 이런 상황일수록 남북이 대화를 통해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정부는 5일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화상으로 열고 국내외 정세 안정이 매우 긴요한 시기에 이뤄진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청와대가 보

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에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오전 8시 10분께 내륙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며 "한미 정보 당국이 추가 정보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8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2]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광주일보 70
행사 70주년

광주일보 70주년 엠블럼
화살표가 원 주위를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는 시각적 표현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한결같이 독자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고수들의 명 강연 ... 지역 최고 인적 네트워크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제10기 원우 모집

광주일보가 주최하는 고품격 아카데미에 광주·전남 지역 각계 리더들을 모십니다. 광주일보는 3월부터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등 각 분야 유력인사들이 참여하는 1년 과정의 '제10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를 개설합니다.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국내 최고 전문가들을 초빙해 수준 높은 강의와 함께 각종 공연 등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올해 10주년을 맞은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는 강연과 토론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 주요 영역의 시대적 과제와 해결책을 집중 탐구하는 최고급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창간 70주년이라는 호남 최고 전통에 빛나는 광주일보 브랜드 가치와 영향력에 걸맞게 수강생 여러분이 지역사회 최상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일보가 평생 가족으로 모시는 교육과 교류의 장에 지역 리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모집 인원 : 00명
- 지원 자격 : 기업 경영진 및 임원, 국회의원·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정부기관 단체장 및 고위 관리자, 사회단체장, 법조·의료·교육·문화·예술·체육계 등 각 분야 전문가
- 교육 기간 : 2022년 3월~2022년 11월
- 강의 시간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8시30분(호텔식사 제공)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22년 2월 28일까지
- 합격자 발표 및 등록 : 서류전형 후 개별통보
- 수강료 : 550만원(부가세 포함)
- 문의 : 광주일보 편집국 062-220-0663

光州日報社

Sulwhasoo

설화수 자음생크림
6,000배* 고농축 진세노믹스™의 힘으로
탄력의 시간을 무한하게

탄력이 떨어지고 있다면, 복잡한 피부 속을 바로 잡으세요
강력한 인삼에너지를 6,000배* 이상 고농축한 진세노믹스™,
피부 한 층 한 층 채우고, 세우고, 당기고**, 탄력을 끝까지 붙잡아줍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탄탄해진 피부를 경험하세요

NEW
Sulwhasoo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CREAM EX
CREME REGENERANTE

*인삼 인삼 성분 함량 비교 **피부탄력도 +12.3%, 탄력 +20.2%, 주름 25.9% 완화됨. 실험 결과(49 후 사용 결과)(대상: 30~60세, 31명) 시험기간: 2021년 03월 03일~2021년 05월 03일